

‘책의 해’에 바란다

박계홍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문화부에서 계유년인 올해를 ‘책의 해’로 제정한 데 대하여 도서관계에서도 이를 환영한다. 책의 해로 결정한 데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어진다. 즉 책이 우리 민족의 정신적 뿌리이며 줄기라는 것을 다시한번 새로운 시각에서 되찾아보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책을 읽지 않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책을 읽도록 하는 동기유발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우리 사회는 책을 소중히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을 읽는 행위 자체에도 주체성이 없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책과 독서의 참맛을 터득하고 독서생활의 기초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는 학교교육 현장에서도 독서행위 자체가 차단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책의 출판실태도 책과 국민과의 교감 사이클이 잘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전파의 잡음처럼 소리가 혼탁하기만 하다.

‘책의 해’의 모든 행사계획도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계획을 세워서 추진되어야만 하겠다. 이미 ‘책의 해’ 행사 추진을 위한 위원회도 발족되고 행사계획까지도 성안되고 있다.

모든 행사 진행이 그러하듯이 행사 위주나 전시 위주의 일시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책이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 속에 밀착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되어야만 하겠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주체적인 독서생활을 할 수 있는 씨앗을 국민들 머리 속에 심어놓아야 하겠다. 또한 이 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의 맥을 책에서부터 찾아 이를 체계화하여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서지적인 문헌종합목록 작업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작업이야말로 우리 책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현대사회에서 책은 그 국가와 민족에게만 국한된 유산이 아니라 인류문화의 존귀한 유산이라는 점도 인식시키도록 하여야 하겠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책의 생산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책의 이용가치면은 더욱 중요하다는 시각에서 국민들이 손쉽게 책을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보다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책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도서관 이외에는 없다.

도서관이 국민들에게 책을 읽도록 하는 봉사형태로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책에 관한 정보를 알고 도서관에 찾아오는 이용자에게 봉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서관에서 국민들에게 책을 가져다주는 노동적인 봉사방법이 있다. ‘책의 해’ 만이라도 국민들에게 원하는 책과 읽고 싶은 책을 직접 배달해주는 일들이 과감하게 전국적으로 실시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다. 이 사업은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실시 가능한 것으로서 행사비용의 일부분을 종자돈으로 배정하여 실시하되, ‘책의 해’ 행사가 끝난 다음에도 이 사업은 존속될 수 있는 일로서 매우 보람있는 책의 해가 만들어 놓은 기념품이 될 것이다.

책의 해를 맞이하여 간절히 생각나는 것은 해외, 특히 사회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의 ‘책’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과 또한 외국에서 한국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우리의 책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뉴스	2	‘책의 해’ 사업프로그램 확정·외
표지인물	4	“출판문화 발전의 든든한 초석 놓겠다” 책의 해 조직위원장 김낙준씨
연중기획	6	한국근대사와 책의 사회사 ② — 유재천 유길준의 「서유견문」
초점	8	‘좋은 책’ 선정작업의 현황과 문제점 각급 기관단체서 꾸준한 활동… 내실 다지는 게 급선무
서평	10	이원순 「조선시대사론집」 — 하우봉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 서중석
	11	이호철 「농업경제사연구」 — 김성훈 전경수 「한국어촌의 저개발과 적응」 — 조경만
	12	아리베 외 「언어학과 정신분석학」 — 김현권 다니엘 벨 「정보화사회와 문화의 미래」 — 전철환
	13	와타나베 마사오 「일본인과 근대과학」 — 이성규
	14	폴 데이비스 「우주의 청사진」 — 구현모 최윤 「저기 소리없이 한점…」 — 황현산
	15	엄창석 「슬픈 열대」 — 권택영
출판화제	16	문화행사 여는 출판사들 많아졌다 오랜만에 보는 출판인 자서전
	18	족보출판에도 현대화 바람 분다 사진편집은 예사… 최근엔 비디�족보까지 등장
	19	체험적 육아론 다양하게 쏟아진다 아버지 경험 담은 책 많아 특징적… 형식도 갖가지
	20	본격 ‘북클럽’ 국내서도 뿌리내린다 교본문고서 새해부터 시행… 도서유통 채널 다양화 계기
이책을 말한다	21	정치의 계절에 생각하는 「영국의회」 — 배병삼
화제의책	22	「압구정동:유토피아 디스토피아」
	23	실험 중심의 과학도서 「마이스이언스북」
이 책 그 사람	24	「김유정소설과 시간」 낸 박정규씨 「일본은 한국역사를 왜…」 낸 홍진희씨
	25	「생의 이면」 낸 이승우씨 「먼지의 집」 낸 이윤학씨
에세이	26	경험이 펄펄 살아 뛰는 진정한 책 — 최하림
세계의 책	28	미국과 영국의 1992 베스트북 — 오애리
	30	독자서평
	31	이 달의 청소년도서
	32	화제의 신간
	34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
	42	신간목록
	48	프리즘 / 재미있는 책이야기 / 정기구독안내